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후회 없게 개운하게

새벽 2시, 법당에 다녀와 나무침상에 앉아있다. 빗줄기는 거세게 폭포처럼 내리고 있다. 흥건히 몸과 마음이 빗물에 젖어 감기 기운을 키울 것 같다.

방금 끓여놓은 커피 잔에서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며 적당히 행복하게 온 몸으로 파고든다. 마른장마의 긴 목마름이 물 폭탄으로 또 다른 피해를 몰고 올지 모를 일이다.

세상일이란 날씨의 변화처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짙은 안개처럼 자욱한 느낌이 없지 않다. 요즘 장맛비는 예전과 다르게 좁은 지역에서도 가뭄과 홍수를 연출하며 손오공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니다. 마음에도 흰 머리카락이 늘어 빈 뜰의 허무감을 키우고 있다.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날짜를 헤아릴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눈물방울로 남을 터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늙음이 깊어갈 수록 하루가 소중하고 매 순간이 금싸라기처럼 아름답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며 비우며 살아간다. 만나는 사람이 모두가 스승이고 착한 벗이 된다. 날마다 철이 들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떠난 사람은 언제나 더 커 보이고 지난일은 적당히 부끄러워 지우고 싶다. 열손가락을 폈다 오므릴 수 있는 기적이 오늘도 건강하게 허락될 터이다. 살아있음은 그대로 축복이면서 기적이다. 움직일 수 있음은 그대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넉넉한 삶이 보장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적이다. 움직이는 부처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그리운 얼굴을 추억의 숲에서 꺼내 작설차를 나누고 싶지만 혼자만의 대화는 길게 이어질 수 없어 허무의 그림자로 막을 내린다. 먼저 떠난 도반들의 해맑은 미소가 가슴속에서 몇 송이의 연꽃이 되어 떠다니고 있지만 추억은 아름다운 만큼 아프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빛보다는 어둠 쪽의 그림자가 길게 다가온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지느러미엔 언제나 마른 버짐의 가려움이 남아있다.

늙으면 추억으로 산다지만 늙으면 마무리 작업으로 수레바퀴의 흔적을 가볍게 개운하게 꽃 이파리처럼 아름답게 남기며 살 일이다.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순수하게 속지도 속이지도 않는 진솔함이 넉넉하게 널려 있어야 편안하다.

속임은 불편함을 몰고 오지만 솔직함과 순수는 그대로 행복이 되고 자유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챙기고 모으고 쌓아둔 것들을 양심의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해 보자. 만날 수 있는 알곡은 몇 알 안 되고 수북이 쌓인 검불떼기에서는 찬바람이 가슴 싸한 후회로 남을 터이다.

모질게 억세게 매몰차게 선(線)긋고 편 가르며 땅뺏기 놀이처럼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이 달아난 어금니의 아픔이 되어 짠한 그림자로 남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집착의 굴레는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남아 노년(老年)의 남은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터이다.

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법이다. 늙으면 한걸음이 아닌 서너 걸음 물러나는 지혜를 실천해야한다.

가끔씩 착한 도반을 찾아가거나 찾아오게 해 작설차, 커피향으로 마음을 나누며 덮이며 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간다. 병이 든다. 죽는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후회 없는 개운함으로 맑고 밝게 살 일이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오늘 뿐이다. 오늘의 참 주인공으로 할 일없는 넉넉함으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 일이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생활의 언어일 수 있게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후회 없이 살 일이다.

장맛비를 내 남은 생에 몇 차례나 만날 수 있을는지.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지는 꽃 이파리를 닮고 싶다. 후회없게, 개운하게.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후회 없는 개운함으로 살아가자

온 세상이 한 개의 公案
〈공안〉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공안(公案)이란 본래 공부안독(公府案牘)의 줄인 말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청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제시한 어구나 행동, 제자들과 나눈 대화, 깨달음의 계기가 된 어떤 정황 등을 참선의 모범적인 법도로 삼아 이를 공안이라 말해 왔다. 특히 간화선에 있어서는 이 공안이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가 된다. 간화선은 공부의 핵심이 공안 타파에 있다고 말한다.

〈벽암록〉 서문에 보면 "기록을 모아 공안집을 만들고, 기연(機緣)과 경지를 펼쳐 모범적인 법령으로 삼은 것은 세간의 금과옥조(金科玉條)나 청명대월(淸明對月) 등의 책들과 다를 것이 없다. 조사가 공안을 세우고, 총림에 남겨둔 것은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고 공안의 의미를 밝혀 놓았다.

공안을 통하여 견성(見性)을 지향하는 것이 간화선의 목표이다. 다시 말하면 공안은 사람을 견성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수단이자 방법인 것이다. 또 화두(話頭)라 하는 것은 공안에 제기된 핵심적인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 등 모든 영역에서 이 화두를 궁구하는 것이 간화(看話)이다.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인연에 적용하는 것이 화두공부다.

"온 세상이 한 개의 공안이다"라고 한 말도 전해진다. "고금의 공안을 궁구하여 마음을 밝히고,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어 한 치의 아름아리도 없게 되면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공안을 눈앞에서 실현해 드러내 보이는 것을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 한다. 〈종용록〉 45칙에는 "공안을 현성하려면, 다만 자신의 본분가풍(本分家風)을 근거로 해야 하고 자기 본분 밖으로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서암사언(瑞巖師彦: 생몰연대 미상) 선사에 의해 창안된 특별한 공안이 하나 있다. 바로 '주인공' 화두다. 암두전활(巖頭全豁:828~887)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암두의 법을 이은 서암 선사가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스스로 '예!' 하고 자문자답한 일에서 나온 화두다.

〈선문염송설화〉 988칙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온다. 현사사비(玄沙師備)가 어떤 스님에게 묻고 스님이 답한 대화가 있다.

"요즈음 어디서 떠났는가?" "서암(瑞巖)에서 떠났습니다." "서암이 무슨 말을 하던가?" "늘 '주인공아' 하고 불러놓고는 스스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나중에 남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현사가 말하였다.

"하나같이 정혼(精魂)을 놀리니 매우 괴이한 일이로다."그리고 다시 물었다. "왜 거기에 있지 않고 나왔는가?" "서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사가 또 물었다. "지금도 대꾸를 하던가?"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못했다.

서암 선사가 스스로 주인공을 부르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주인공' 공안이 된 것이다. 주인공은 곧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쓴 말이다.

죽암(竹庵)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할 적에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의 종결점을 알려면 먼저 주인공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장자를 세우고 말하였다.

"주인공이 간 곳마다 드러나서 거울같이 맑고 허공처럼 넓다. 잘 비추고 잘 포용하나니,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서 만나고, 일어나건 앉건 함께 웃고 말한다. 오래도록 또렷또렷하여 어둡지 않고 대답할 줄 알며, 고개를 끄덕일 줄도 알고 눈망울은 튀어나오며 머리카락은 너울너울한다.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고 구름은 용을 따른다. 용은 하늘로 오르고 학은 둥지에서 나와 푸른 하늘을 천만 겹을 뚫고 벗어났다. 대중들이여, 벗어난 뒤엔 어디로 갔는가?"

또 주장자를 세우고 말하였다.

"화표주(華表柱: 길거리에 세워 이정표로 쓰는 푯말) 끝에다 말(語)을 남겨둔 뒤로 아직껏 아무 소식이 없구나."

서암 선사의 주인공을 두고 운문고(雲門 皐 또 이렇게 송(頌)했다.

"서암 선사의 가풍이 주인공을 부르니 지난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昨夜南山 虎咬大蟲)"

자비,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④공덕을 맛보게 되면

有嘗功德味者得自在修福得他報恩勝氣味。夢中 不爲己修福。況復覺時。以智能見過終不求有造福。悲心者終不爲解脫修福。智者棄求有業。悲者棄解脫業。所以者何。悲者爲利益他故。無勝智慧平等造作。因福一果福無與等者。從十力得智。爲己得樂捨利他樂名背恩者。唯我能知。從佛得知故一切眾生是我修福之伴。設當得果而獨受用名背恩者。極難得樂豈得獨受。其如是丈夫爲一切所棄。設得千涅槃樂不爲饒益。不如救一眾生苦勝得千涅槃樂。解脫樂 不獨受。何以故。見世間眾生無歸無救故。 不獨受解脫樂。況復無上菩提。

번역 | 공덕의 맛을 본 사람은 복 받는 것에 자유자재하며, 타인에게 은혜롭게 보답하는 수승한 기운의 맛을 얻습니다. 꿈에라도 오히려 자신의 복 닦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시 깨달았을 때도 지혜로 과오를 보며 끝내 복 짓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란 끝내 해탈을 바라서 복을 닦지 않기 때문이니 지혜란 구함을 버린 업이며, 자비란 해탈을 버린 업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자비란 타인을 이익케 하는 것이며, 위 없는 지혜는 평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니 복의 인연과 한결 같은 복의 과보는 더불어 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력(十力)을 따라 지혜를 얻되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얻고 타인의 즐거움을 저버리는 것을 일러 배은(背恩)이라 합니다.

오직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따르는 앎을 얻었기에 일체 중생은 내가 닦을 복의 짝이 됩니다. 설령 응당 과보를 얻어도 홀로 받아쓰면 배은자(背恩者)가 되거니와 심히 얻기 어려운 즐거움을 어찌 홀로 받겠습니까. 이러해야 대장부이며 일체를 버린 것이니, 설령 천 가지 열반락을 얻어도 이익 될 게 없습니다. 한 명의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수승한 천 가지 열반락 얻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해탈락(解脫樂)은 늘 홀로 받지 않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중생은 돌아갈 것도 없고 구제할 것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홀로 해탈락을 받지 않나니, 하물며 다시 위 없는 보리(菩提)이겠습니까.

해설 | 십력(十力)은 부처님의 열 가지 전능한 힘을 상징한다. 첫째, '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은 도리에 맞는 것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변별하는 지혜다. 둘째, '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은 업인과 업과를 아는 지혜다. 셋째, '정려해탈등지등지지력(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은 사선(四禪), 팔해탈(八解脫), 삼삼매(三三 Ṃ, 팔등지(八等地) 등의 선정을 아는 지혜다. 넷째, '근상하지력(根上下智力)'은 중생의 근기를 아는 지혜다. 다섯째, '종종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은 중생의 가지가지 희망을 아는 지혜다. 여섯째, '종종계지력(種種界智力)'은 모든 중생계와 법계를 아는 지혜다. 일곱째, '편취행지력(遍趣行智力)'은 중생이 가는 곳을 아는 지혜다. 여덟 번째, '숙주수염지력(宿住隨念智力)'은 자타의 과거생을 아는 지혜다. 아홉 번째, '사생지력(死生智力)'은 중생의 죽음과 삶의 아는 지혜다. 열 번째, '누진지력(漏盡智力)'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지혜다.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이러한 열 가지 얻어도 능력을 얻어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는 부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중생도 한 생각 돌이키면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중생은 각자의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 세계의 공동체이며, 일원이다. 나와 다름없는 불이(不二)의 구성원이다. 은혜를 같이 할 이들이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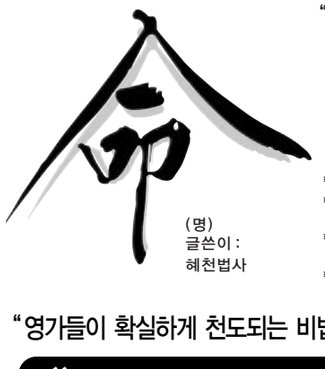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